집중호우 생채기 곳곳

광주·전남 재산피해 집계된것만 58억

신안·나주 호우 우심지역 지정 여부 주목

지난 7일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주택 및 시설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해당 시·군·구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9~10일 사이 장맛비가 또 한번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이번 비로 피해가 심각한 신안군과 나주시의 경우 재해대책법상 호우 우심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집중 호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나주시와 화순군 등 7개 시·군에서는 203가구 4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517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축산농가 12곳도 침수피해를 입어 닭과 오리 등 27만1천 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농경지 피해가 커 도내 농경지 8천346ha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매몰됐으며, 시설하우스도 26.4ha가 파손됐다.

또 담양과 무안 등 하천 둑 21곳 632m와 소 교량 2개가 붕괴·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는 일선 시·군의 집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택 및 상가 183동, 농경지 312ha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날부터 254명의 인력과 트럭 112대 등을 동원해 산사태 등으로 밀려 내려온 토사를 제거하고 유실된 소하천 둑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배수펌프장 가동과 물꼬 조절을 통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구호작업도 벌이고 있다.

광주시도 816명의 인력과 트럭, 양수기 등 장비 201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인력과 물자,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면서 "잦은 비로 인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신안군과 나주시는 우심지역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해대책법상 우심지역 지정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 100%,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30~35%가 지원된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신안군은 피해액이 14억원, 나주시는 20억원이 넘어설 경우 우심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종 피해규모는 전남도의 조사에 이어 중앙 정부의 현지 확인작업을 거쳐 결정되며 통상 10여일이 걸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 장병 '복구 작전'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이 시작된 8일 육군 31사단 장병 100여 명이 무안군 무안읍 한 빌라에서 물에 잠긴 가재도구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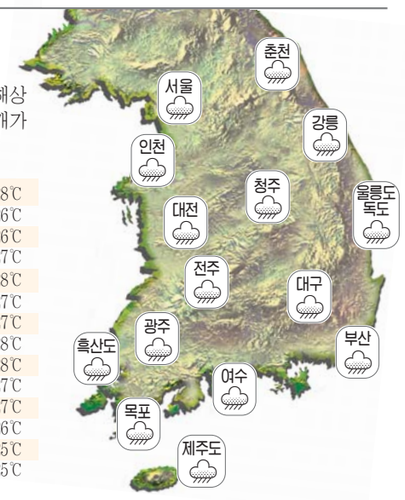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5분 / 해짐 19시 49분 — 달뜸 21시 02분 / 달짐 06시 50분

계속되는 장맛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3/28℃
목 포	흐리고 비	23/26℃
여 수	흐리고 비	23/26℃
완 도	흐리고 비	23/27℃
구 례	흐리고 비	21/28℃
해 남	흐리고 비	23/27℃
장 흥	흐리고 비	23/27℃
고 흥	흐리고 비	23/28℃
순 천	흐리고 비	22/28℃
영 광	흐리고 비	22/27℃
진 도	흐리고 비	23/27℃
전 주	흐리고 비	22/26℃
남 원	흐리고 비	22/25℃
흑산도	흐리고 비	21/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5m
먼바다	남서~서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5m
먼바다	남서~서	1.0~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5m
먼바다	남서~서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5m
먼바다	남서~서	1.0~2.5m

	밀물	썰물
목포	03:33 15:16	08:48 20:38
여수	09:59 22:39	04:12 15:58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날 씨						
최저/최고	22/28	21/28	22/28	22/29	22/29	22/29

광주 外高 내년 개교 무산

보문고도 철회 … 교육청 "원점 재검토"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내년 3월 외국어고 개교가 무산됐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외국어고(외고) 적격심사에서 보문고(일반계)가 외국어고로의 전환을 철회했다.

보문고 재단 보문학숙은 이날 현 학교를 외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교사와 학부모의 낮은 호응도 등 애로가 많아 전환을 포기하고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120억원을 들여 건물과 국제문화센터 등을 신축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학급 기준으로 2011년 개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문고의 외고 전환 철회는 교원확보 애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환을 할 경우 최소 10명안팎의 기존 교사를 내보내고 신규 채용해야 하지만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전환신청을 한 2개교 중 D여고는 철회하고, 보문고는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외국어고 개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과 강원을 제외하면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게 됐다. 한편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 지역의 학생은 타 지역 외고의 진학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역 우수 중학생들의 외부유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복댐 저수율 상승 … '물폭탄' 덕 본 광주시

제한급수 철회

광주시가 지난 7일 내린 집중호우 덕분에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방침을 철회했다. 시는 또 그 동안 가뭄으로 인해 올 초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암댐 물을 추가로 매입해왔으나 동복수원지 저수율 상승으로 이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시가 관리하는 화순 동복수원지에 2천800만t의 물이 유입돼 저수율이 지난 6일 13.6%에서 43.8%로 대폭 상승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600만t의 물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저수율이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주암댐 물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시는 지난 1월부터 매일 물 12만t을 t당 210원씩에 매입해왔다.

시는 또 이달 말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제한급수 방침도 취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파라치' 묻지마 신고 … 교육 당국 '골머리'

광주 5건 접수 모두 허위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인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한 이후 광주지역에서 '묻지마 식' 신고가 잇따라 교육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학파라치' 첫 시행 이후 이날 오전부터 무등록 학원 신고 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해당 학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등록학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등록 학원(포상금 50만원)에 대한 의심사례만 신고된 것은 기본적인 서식만 갖추면 되고, 해당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학원 명단이 1~2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되는 탓에 최근에 등록한 학원의 경우 무등록 학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30만원)과 불법 고액 과외교습소(최고 200만원) 등은 학원생이 아닌 이상 발견이 어렵고, 동영상이나 사진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까다롭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고 많다 시외버스 기사 해고는 부당"

광주고법, 1심 뒤집어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8일 시외버스 운전기사 3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원고들의 '사고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무사고·포상 경력, 징계 경감 사유 등의 요인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운전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호산업은) 원고들보다 더 많은 사고점수를 받고도 해고되지 않은 운전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운전원은 광주·전남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과속 등 과실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 사고점수가 100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경찰 향해 차량 돌진

광양경찰, 20대 영장

광양경찰은 8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차량으로 돌진해 중상을 입힌 신모(20)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신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모(23)씨와 오모(여·20)씨도 검거했다.

신씨와 이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양읍 모 마트 앞 주차장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순천경찰서 소속 조모(48) 경사를 향해 차량을 몰아, 조 경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